

Let's Sing	Dance Monkey	Class No.	__학년__반 번호__
Tone and I		Name	



이름 Tones and I (본명은 Toni Watson)
출생 2000년 8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직업 싱어송라이터 (인디 팝, EDM)
앨범 The Kids Are Coming (2019)
특징 끼와 실력이 넘치는 만 19세의 솔로 아티스트, 처음 무작정 버스킹으로 가수 생활을 시작해 현재는 호주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 중 한 명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목소리와 창법이 인기의 비결!
배경 'Dance Monkey'는 데뷔 전 톤즈앤아이아가 호주에서 버스킹을 할 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다. 6시간 동안 버스킹으로 번 돈을 누군가에게 도둑맞았고, 이를 발견한 그녀는 '죄송하지만, 공연은 여기까지 할게요'라며 관객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관객들은 '빨리 노래해봐. 너처럼 연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네가 지나가던 날 멈춰 세웠잖아.'라며 야유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신나고 즐거운 곡의 분위기와는 달리, 마치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자신을 향한 끝없는 요구와 조롱에 대한 상처와 처절함이 묻어나는 노래이다.

They say, "Oh my god,
사람들은 말하지, 세상에,
I see the way you shine.
너 정말 빛이 나는구나
①_____ your hands, my dear,
너의 두 손을 가져와
and place them both in mine
내 손 위에 올려봐
You know you stopped me dead
네가 나를 꿈쩍 못하게 멈춰 세운거 알지?
while I was passing by
내가 지나가던 길에 말이야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그러니까 이제 제발 네가 춤추는 걸 보고 싶어
just one more time
딱 한 번만 더 보여줘

[Pre-Chorus]

Ooh, I see you, see you, see you every time
오, 난 항상 너만 보여
And oh my, I, I, I, I like your style
세상에, 난 너의 스타일이 좋아
You-, you make me, make me,
make me wanna cry
넌 내가 울고 싶게 만들어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그러니까 이제 제발 니가 춤추는 걸 보고 싶어
just one more time"
딱 한 번만 더 보여줘

[Chorus]

So they say, "②_____ for me X3, oh-oh
사람들은 말하지 나를 위해 춤을 춰 달라고
I've never seen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너처럼 춤을 추는 사람을 말야
They say, "③_____ for me X3, ayy-ayy
사람들은 말하지 나를 위해 움직여 줘
And when you're done
그리고 다 끝나면
I'll make you do it ④_____
네가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만들거야
All again"
모든 걸 다시 하도록 말야

I said, "oh my god, I see you ⑤_____
내가 말했지, 세상에, 네가 지나가는 걸 봤어
⑥_____ my hands, my dear,
내 두 손을 잡고,
and look me in my eyes"
내 두 눈을 바라봐
Just like a ⑦_____,
딱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I've been dancin' my whole life
난 내 평생 춤을 춰 왔지
But you just beg to see me dance
하지만 넌 내가 춤추길 바라고 있어
just one more time
한 번만 더